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동향

- 프리시니어 담론의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소연* · 손재현**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알파에이지(Alpha Age)’라는 새로운 개념이 논의되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전망하는 오늘날의 우리는 변화된 생애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의 재설계와 세대에 대한 질적 접근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이 과거의 생애주기 기준과 달리 장기간 지속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이 중·장년 시기의 삶의 방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한정섭, 김민하, 2020, p. 174).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40-64세)은 전체 인구의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주도하는 핵심 세대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과거의 중·장년층과는 다른 문화적 경험과 소비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체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한 ‘디지털 친숙 세대’로 확인되어 기존의 시니어 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전보미, 2026, p. 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사회에서는 ‘꽃중년’, ‘신중년’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파생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질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나타난다(조은지, 문영, 2016, p. 154).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제한적으로 향유되던 문화예술 활동이 대중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여가의 개념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주저자, 동국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shon3420@daum.net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중·장년층은 온라인 및 뉴미디어 기반 콘텐츠 소비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이는 문화예술 향유 방식의 확장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중·장년층의 문화예술 참여는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용 활동은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기반으로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몸의 언어’의 특성을 지니며, 표현 방식이 비교적 직관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연령층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장예, 2024, p. 2). 김희진, 김수연, 박휴경(2024, p. 1000)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무용 활동을 통한 진지한 여가 경험은 삶의 주체성을 회복시키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미량, 장석준, 이제홍(2016, p. 481)의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무용 활동 참여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무용 경험은 신체 중심의 활동을 넘어 개인의 내적 성장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활동을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자기 인식과 경험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한 모리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M.)의 현상학적 관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몸은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근원적 매개”라는 관점에서 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기 인식과 경험이 체화되는 과정이며, 이는 주체적인 삶의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무용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폭넓은 무용 장르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인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무용이 신체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문화예술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가능하며, 중·장년층의 요구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용 참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일한 연령별 집단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접근은 다양한 생애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내부의 세대적 특성과 삶의 방식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단일 연령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와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연령 및 상태에 따라 노년 집단을 세분화하여 이해한 버니스 뉴가튼(Bernice Neugarten)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은퇴 전후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프리스니어(pre-senior)’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은 생애전환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연령 범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프리시니어는 만 40세에서 만 64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니어 이전 단계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생애전환기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해된다. 한편 신은경(2025, p. 6)은 프리시니어를 40세-49세 연령대로 보다 좁은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며,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동시에 활발한 소비성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소비 지향적 문화가 자리 잡은 1990년대에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를 경험한 X세대를 중심으로 세대적 특성을 공유하며, 성장 배경 속에서 축적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문화 향유와 소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오광수, 2021, pp. 83-84).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프리시니어 집단은 기존의 중·장년층 개념과 비교하여 능동적인 여가 향유와 자기계발, 문화소비 성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며, 문화예술 활동, 특히 신체 표현을 기반으로 한 무용 활동에 대한 참여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장년층의 무용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여러 측면에서 축적되어 왔다. 중·장년층의 무용 참

여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호열, 김준희(2010), 정동근, 원유병, 김은경(2011), 장운영(2021)의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와 함께 문현화, 임영란(2019), 이소은(2024)의 체력, 신체구성 등의 신체적 건강 변인을 중심으로 한 생리학적 연구가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용 참여 인구의 증가와 세대별 생활패턴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서영, 2024, p. 56).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년층의 무용 참여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장년층의 세분화된 특성과 무용 참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발표된 중·장년층 무용 참여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연도별 변화,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주제, 참여 무용 장르 등을 파악하여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경향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프리시니어 담론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중·장년층의 무용 참여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문헌 검색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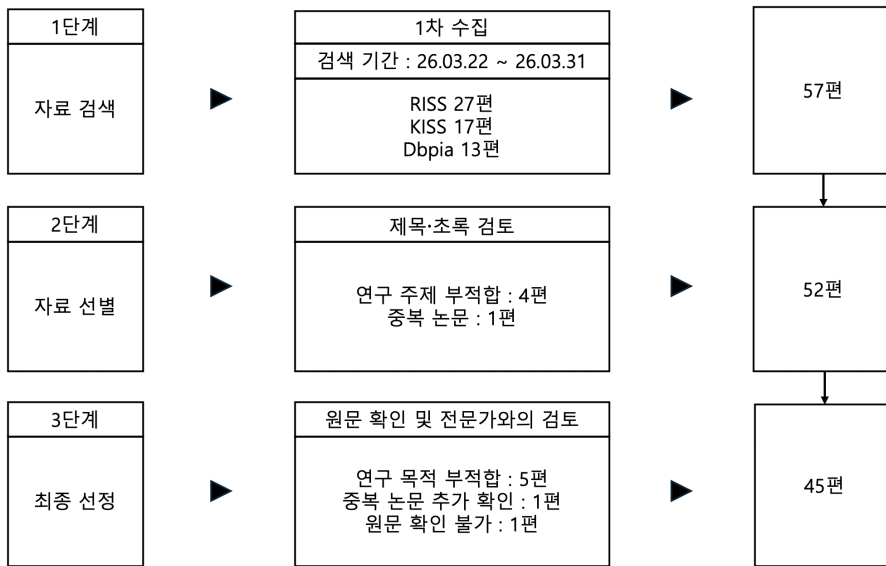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무용 참여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절차를 참고하였으며, 문헌 선정 과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절차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검색 대상은 2010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최근 약 15년간 축적된 연구를 대상으로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의 변화 양상과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에서 ‘중·장년층’, ‘중년’, ‘무용’, ‘프리시니어’ 등을 중심으로 검색어를 설정하여 관련 논문을 추출하였다.

문헌 선정 기준은 첫째, 중·장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둘째, 무용 참여와 관련된 연구, 셋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의 무용은 한국무용, 현대무용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수행되는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에어로빅댄스 등 생활무용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문헌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수집된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목적과의 관련성이 낮은 문헌을 제외하였다. 이후 중복 문헌 여부를 재검토한 뒤, 2차적으로 본문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이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원문 확인 과정에서는 KCI, Google Scholar 및 학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으며,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문 열람이 가능한 논문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45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 및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문헌을 분류하였으며, 이후 박사학위를 소지한 무용교육 전공 전문가 2인과의 검토 과정을 통해 문헌 분류의 적절성을 논의하였다. 문헌 검색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의 PRISMA 흐름도에 제시하였으며, 최종 선정

된 논문의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1> PRISMA 흐름도

<표 1> 분석 대상 목록 (연도별 오름차순)

분류	저자(연도)	논문제목
1	이호열, 김준희(2010)	생활무용 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중년여성의 여가만족과 지속적 참여의사
2	정동근, 원유병, 김은경(2011)	생활무용을 수강하는 중년여성들의 자기결정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3	정의권, 민현주(2011)	중년여성의 다이어트댄스 참여와 여가만족도의 관계
4	이미영(2011)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 여부에 따른 지각된 운동방해요인의 차이
5	박수영(2011)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에 따른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6	박승아, 이정용, 손연희, 서영환(2012)	에어로빅댄스가 중년여성의 사상체질별 신체변화 및 체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7	김정하, 윤정수, 백승현(2013)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CKP중년여성의 대퇴부 근육과 무릎관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
8	허진영, 송기현(2013)	생활무용 참여 중년여성의 자아실현 예측을 위한 기본심리욕구와 무용몰입의 관계모형 검증
9	김은숙(2013)	중년여성 댄스스포츠 동호인의 운동행동변화과정이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0	이혜란, 윤인애, 윤용진(2013)	중년층 라인댄스 참여자의 동기가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1	박관도, 박윤진, 김윤희(2014)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중년여성들의 신체이미지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12	김은숙, 최희연(2014)	댄스스포츠 참여가 비만 중년여성의 혈관계 변인 및 렙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13	박진미, 박정희, 이성기(2015)	중년여성을 위한 사회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대구시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14	이연수, 박혜경(2016)	인천지역 중장년 여성 무용분야 예술교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활동중독과 주관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15	배나래(2016)	중년기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6	김미량, 장석준, 이제홍(2016)	중년남성의 댄스스포츠 참여동기 유형이 만족과 지속요인에 미치는 영향
17	조은지, 문영(2016)	중년의 무용활동 참여동기와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18	송리라, 전성범, 이철원(2017)	라인댄스 참여 중장년 여성의 재미요인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19	장은서, 민현주(2017)	중년 여성들의 라인댄스 참여몰입이 자기관리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20	윤정미(2017)	한국무용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
21	홍혜전(2018)	중년 부부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22	강숙영, 김승일(2018)	중년여성의 무용 활동을 통한 삶의 균형 분석
23	노현식(2018)	폐경 후 비만 중년여성의 댄스스포츠 적용이 Osteosarcopenic obesity 지표와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24	임향아(2018)	중·장년층 여성들의 진지한 여가활동(라인댄스) 참여 동기의 변화와 이해 : 근거이론을 기초
25	채명신(2018)	중장년 여성의 전통춤과 요가활동을 통한 예술적 체험 및 정서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26	박소영, 윤정수, 하태균(2019)	8주간의 발레운동과 식초섭취가 과체중 중년여성의 면역기능 인자에 미치는 영향
27	박소영, 하태균, 윤정수(2019)	발레운동과 식초섭취가 골감소증을 나타내는 중년여성의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28	김옥희(2019)	생애전환기 무용이 주체적 삶에 미치는 영향 : 중장년층을 위한 춤 인문학 사례를 중심으로
29	이채산(2019)	자이브 댄스 운동이 비만중년여성의 체성분, 동맥경화지수 및 아포지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30	문현화, 임영란(2019)	줌바 댄스 프로그램이 비만 중년여성의 건강체력과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
31	김민교, 오덕자(2020)	발레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혈중지질, cortisol 및 성장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32	정희정, 노정식(2021)	무용 프로그램이 중·노년 여성의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33	장운영(2021)	벨리댄스 공연참여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34	박휴경, 정원정, 김희진, 이나영(2022)	중년의 현대무용 전공인들의 라인댄스에 대한 이야기보따리 풀기 : 입문계기를 중심으로
35	채송아, 김승일(2022)	코로나 19가 중년여성의 생활변화에 미치는 요인 탐색 : 한국무용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36	송미림, 이록빛, 허진무(2023)	중·장년 여성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한국무용 참여의 의미
37	김정하(2023)	한국무용 수행이 폐경기 중년여성의 면역력 및 체열 변화에 미치는 영향
38	김희진, 김수연, 박휴경(2024)	‘진지한 여가’로서 중년여성들의 ‘라인댄스 무용단’ 활동 경험
39	박주영, 김현륜(2024)	댄스 참여 중년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참여동기 및 운동지속 간의 관계
40	이소은(2024)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가 건강관련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41	한수지, 최소빈(2024)	중장년 여성의 발레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열감, 혈압 및 갱년기 증상의 변화양상 : 양적·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
42	황미숙(2025)	마암댄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중년여성의 ‘현대무용단’ 활동 경험 탐색
43	서영(2025)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건강과 생활만족의 매개효과
44	최정은(2025)	중년여성의 현대무용 참여가 창의적 표현력과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45	김다희, 정세빈(2026)	평생교육으로서 스트릿댄스 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중장년 학습자와 스트릿댄스 교육자를 중심으로

2. 자료 추출 및 자료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4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5개의 분석 영역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시기,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주제, 참여 무용 장르로 구분하였으며, 각 상위 영역에 따라 세부적인 하위 영역을 설정하여 분류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추출 및 정리는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논문의 주요 정보를 분석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영역에 따른 세부 항목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분석 영역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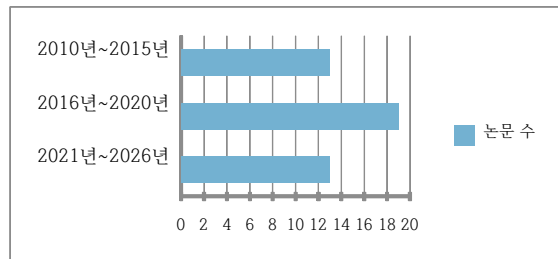
분류	상위 영역	하위 영역	분석 기준
1	연구시기	연도별 분포	2010-2015
			2016-2020
			2021-2026

2	연구대상	성별	여성 / 남성 / 혼성
		연령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대상 특성	일반 중·장년층 / 특정 집단
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방법	양적연구 / 질적연구 / 통합연구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 심층면담 / 실험 등
		측정변인 유형	심리·정서적 변인
			신체·생리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			
참여특성 변인			
4	연구주제	연구주제 유형	참여 동기 및 지속요인 연구
			심리적 요인 및 삶의 질 연구
			신체적 건강 및 생리적 효과 연구
			참여 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프로그램 효과 및 적용 연구
5	참여 무용 장르	장르 유형	한국무용 및 전통춤 / 발레 / 현대무용 / 댄스스포츠 / 라인댄스 등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시기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시기에 따른 총 4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10년~2015’년은 13편(28.9%), ‘2016년~2020년’은 19편(4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2026년’은 13편(28.9%)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구시기별 분석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분야의 연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특히 2015년 이후 더욱 활발히 수행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2020년’에 연구 수

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장년층의 여가활동 및 생애설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중·장년층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 수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 활성화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적 흐름과도 관련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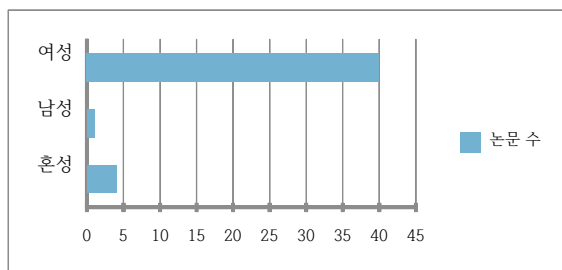
따라서 학문적 관심이 사회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장년층이 단순한 연령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유의미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및 질적 사례연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참여 효과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넘어 진지한 여가 경험과 인지적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탐색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대상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4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연령, 및 대상특성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가. 성별에 따른 동향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를 살펴보면, 총 45편의 논문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0편(8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2.2%), ‘혼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8.9%)으로 나타나, 여성 대상 연구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 무용 활동이 여가 및 자기계발 활동으로서 여성 참여자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온 연구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 연구대상(성별) 분석결과

이와 같은 여성 중심의 연구 편중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중·장년 여성 집단의 경우 생애전환기에서 자녀의 독립, 폐경 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상실감과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배경적 특수성이 존재한다(최수빈, 2025, p. 103). 이러한 맥락 속에서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과 연결되며, 현대무용 참여 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중년 여성의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웰빙에 긍정적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확인된다(Koch, S., Kunz, T., Lykou, S., & Cruz, R, 2014: 최정은, 2025에서 재인용). 이는 중·장년 여성 집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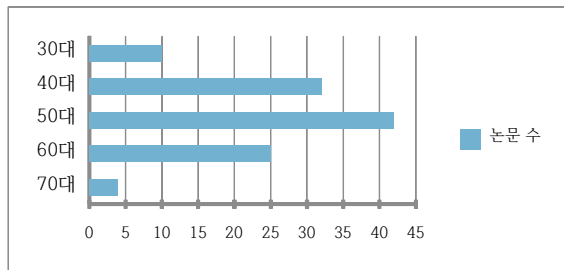
서 무용 참여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댄스스포츠 참여 연구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고되며, 이러한 현상은 중년남성의 자발적 참여 환경의 부재 및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련될 가능성이 제시된다(김미량 등, 2016, p. 476). 따라서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에서 남성 중·장년층의 참여 경험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한 연구대상의 확장과 함께 남성 중·장년층의 참여 동기와 경험을 반영한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성 중심의 연구대상 분포는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연령에 따른 동향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주로 40대에서 60대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편 중 ‘50대’를 포함한 연구는 42편(9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는 32편(71.1%), ‘60대’는 25편(55.6%)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를 포함한 연구는 10편(22.2%), ‘70대’를 포함한 연구는 4편(8.9%)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M), 표준편차(SD)로 연령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연령 범위를 추정하여 분류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연구대상(연령) 분석결과

이처럼 40대에서 60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이라는 포괄적 범주 내에서 연령별 특성과 생애 경험의 차이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채 다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령대는 생애주기, 사회적 역할, 건강 상태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나타나, 연령대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데에는 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한계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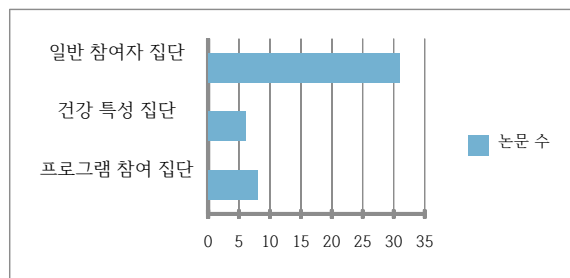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노년 집단을 연령 및 상태에 따라 세분화한 버니스 뉴가튼의 관점은 생애주기 내 이질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뉴가튼의 분류는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며 ‘프리티시니어’, ‘액티브시니어’와 같은 구체화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무용 관련 연구에서도 중·장년층을 단일 집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은퇴 전후의 전환기적 특성을 지닌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 연구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 대상 특성에 따른 동향

대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일반 참여자 집단’, ‘건강 특성 집단’, ‘프로그램 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및 동호인 등의 일반 참여자 집단은 31편(6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건강 특성이 있는 집단은 6편(13.3%), 연구 목적 하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8편(17.9%)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장년층 무용 연구가 특정 질환이나 치료 목적보다는 일반 성인의 여가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이 일반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만, 폐경과 같은 특정 건강 특성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장년 시기를 건강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는 흐름과 함께, 무용이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프로그램 참여 중심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용 활동이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다만 연구대상의 특성과 경험이 다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최수빈, 2025, p. 119)와도 연결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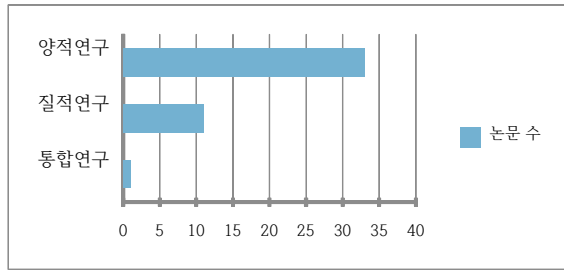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대상(대상 특성) 분석결과

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분석결과

가.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동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45편의 논문을 ‘양적연구’, ‘질적연구’, ‘통합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적연구는 33편(7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질적연구는 11편(24.4%), 통합연구는 1편(2.2%)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20편(4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실험연구는 12편(26.7%), 메타분석 연구는 1편(2.2%)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이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및 관찰일지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연구의 경우 설문조사와 개방형 인터뷰를 함께 활용한 형태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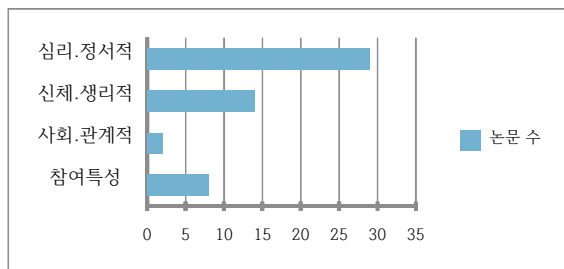
〈그림 6〉 연구방법별 분석결과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에서 양적 접근이 중심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설문지 기법과 체력, 혈액검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실험연구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무용 참여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검증하려는 연구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질적 및 통합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등을 통해 무용 참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검증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무용 참여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측정변인 유형에 따른 동향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45편의 연구를 ‘심리·정서적 변인’, ‘신체·생리적 변인’, ‘사회·관계적 변인’, ‘참여특성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같은 탐색적 연구 진행되어 측정변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하나의 연구에서 둘 이상의 변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변인 유형별로 중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정서적 변인은 25편(5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예로는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변인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생리적 변인은 14편(31.1%)으로 나타났으며, 체력, 신체구성, 골밀도, 혈중지질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참여특성 변인은 8편(17.8%)으로, 참여 동기, 운동지속요인 등의 변인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관계적 변인은 2편(4.4%)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부관계 질과 부부친밀감 등의 변인으로 구성되었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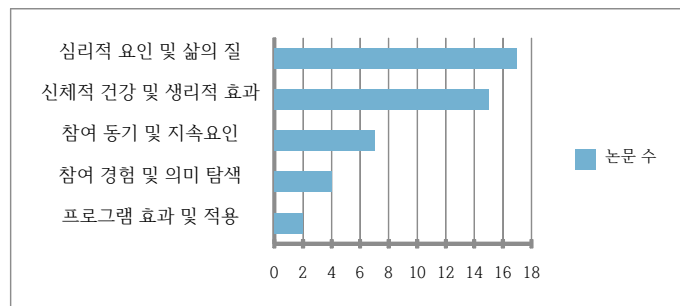


〈그림 7〉 측정변인 유형별 분석결과

이와 같이 심리·정서적 변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사회·관계적 변인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 참여가 스트레스 완화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같은 심리·정서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온 연구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무용은 참여자 간 상호작용과 유대 형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관계적 측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서적 지지와 친목 형성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다(배나래, 2016, p. 18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탐색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유형에 따라 총 45편의 논문을 ‘참여 동기 및 지속요인 연구’, ‘심리적 요인 및 삶의 질 연구’, ‘신체적 건강 및 생리적 효과 연구’, ‘참여 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프로그램 효과 및 적용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요인 및 삶의 질 연구는 17편(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건강 및 생리적 효과 연구는 15편(33.3%), 참여 동기 및 지속요인 연구는 7편(15.6%), 참여 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는 4편(8.9%), 프로그램 효과 및 적용 연구는 2편(4.4%)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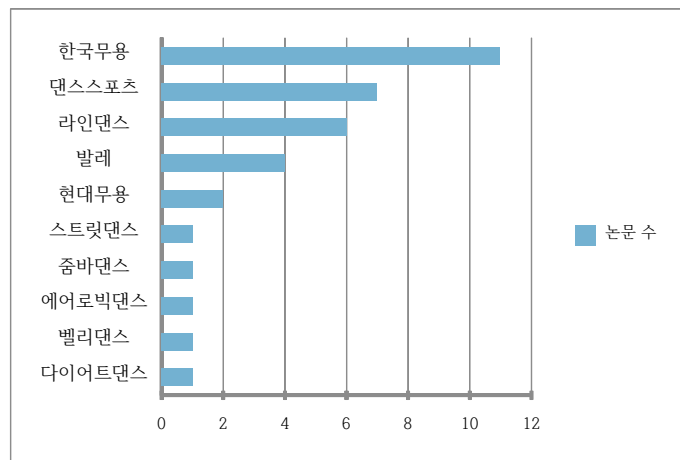
〈그림 8〉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의 무용 참여 연구가 심리적 요인 및 삶의 질과 신체적 건강 및 생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장년층이 생애전환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생애주기 특성이 연구주제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 효과 및 적용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실제 현장 적용과 구조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이 시간과 자원 측면에서 높은 부담을 요구하는 반면, 객관적 수치 검증 연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무용 참여의 실제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프리시니어와 같이 생애전환기의 특성이 뚜렷한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참여 무용 장르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참여 무용 장르에 따라 총 4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의 무용은 중·장년층의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수행되는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등 생활무용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무용’이 11편(2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댄스스포츠’는 7편(15.6%), ‘라인댄스’는 6편(13.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발레’는 4편(8.9%), ‘현대무용’은 2편(4.4%)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스트릿댄스’, ‘에어로빅댄스’, ‘줌바댄스’, ‘벨리댄스’, ‘다이어트댄스’는 각각 1편(2.2%)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러 장르를 혼합하여 적용하거나 생활무용으로 분류한 논문은 6편(13.3%)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장르로 구분되지 않거나 장르 구분 없이 무용 기반 신체활동을 다룬 연구는 4편(8.9%)으로 확인되었다(<그림 9> 참조).



〈그림 9〉 참여 무용 장르별 분석결과

무용 장르 측면에서는 한국무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댄스스포츠와 라인댄스 등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교류 중심의 무용 장르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 참여자들이 익숙함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무용 장르를 선택하는 경향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의 일상적 확산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SNS 및 방송매체를 통해 예술 활동의 노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용 활동의 가치와 특수성이 강조되면서(송미림, 이록빛, 허진무, 2023, p. 109), 발레,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등으로의 장르적 확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무용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전통문화예술 활동으로서 정서적 표현과 심미적 체험이 가능하며, 공동체적 유대 및 아마추어 무용단 활동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배나래, 2016, p. 187). 아울러 높은 예술적 몰입도가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해 참여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적응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르적 특수성을 지닌다(박진미, 박정희, 이성기, 2015, p. 360). 이러한 특성은 중·장년층 참여자에게 단순한 무용 참여를 넘어 자기표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는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보다는 문화적 접근

성 및 정서적 경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질 향상과 자기표현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다양한 장르적 특성과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발표된 중·장년층 무용 참여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연도별 변화,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연구주제, 참여 무용 장르 등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프리시니어 담론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중·장년층 무용 참여 연구의 학문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시기는 2016년 이후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여가 및 생애주기 재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둘째,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여성 중심의 연구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 분포는 40~60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용 연구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질적 및 통합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 무용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의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측정변인과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건강 관련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참여 무용 장르에서는 한국무용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무용 중심의 장르가 활용되는 가운데 발레, 현대무용, 스트리트댄스 등으로 장르적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용 참여 연구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또한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여성과 40~6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심리적·신체적 효과 검증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와 관점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과 은퇴 시기의 변화로 중·장년기의 범위와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장년층을 단일한 연령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 생애주기적 특성과 문화적 요구를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프리시니어 개념은 중·장년층 내부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리시니어는 노년기를 이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지닌 집단으로 기존 중·장년층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무용에 참여하는 중·장년층 내부의 다양한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구체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무용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 질적연구 및 통합연구의 확대를 통해 무용 참여 경험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어떻게 확장하고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 및 복지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중·장년층의 무용 참여 연구 흐름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리시니어 담론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Merleau-Ponty, M.(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Librairie Gallimard.
- 김미량, 장석준, 이재홍(2016). 중년남성의 댄스스포츠 참여동기 유형이 만족과 지속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5, 475-483.
- 김시은, 이혜진(2024). 여성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의 재활적 접근과 효과: 체계적 고찰.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16(2), 23-32.
- 김희진, 김수연, 박휴경(2024). ‘진지한 여가’로서 중년여성들의 ‘라인댄스 무용단’ 활동 경험. **학습자중심교과연구**, 24(19), 987-1003.
- 문현화, 임영란(2019). 줌바 댄스 프로그램이 비만 중년여성의 건강체력과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7(1), 445-452.
- 박진미, 박정희, 이성기(2015). 중년여성을 위한 사회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대구시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9(1), 357-369.
- 배나래(2016). 중년기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7(12), 186-192.
- 백소하, 이경숙(2023). 운동을 통한 몸-주체로서의 몸만들기. **한국체육철학회지**, 31(3), 55-67.
- 백처라, 허식(2020).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간 문화예술 향유격차에 관한 연구: Oaxaca-Ransom 분해 방식 중심으로. **한국문화경제학회**, 23(2), 135-166.
- 서영(2024). 무용의 세대별 체험유형에 따른 지각된 가치와 재미에 관한 연구.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10(4), 55-63.
- 송미림, 이록빛, 허진무(2023). 중·장년 여성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한국무용 참여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62(2), 107-121.
- 신은경(2025). **맞춤형화장품 인식 및 구매의도 연구 -프리·액티브시니어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 오광수(2021). X세대는 자신만의 문화를 향유한 최초의 세대였다. **컬투라**, 79, 82-85.
- 오수현, 박주영(2023). MZ세대와 X세대의 과시적 소비 성향의 차이가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리듬운동학회지**, 16(2), 1-15.
- 이소은(2024).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가 건강관련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3(2), 453-459.
- 윤정은(202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무용 산업의 방향성 탐구. **한국무용학회지**, 24(4), 265-276.
- 이호열, 김준희(2010). 생활무용 참여프로그램에 따른 중년여성의 여가만족과 지속적 참여의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4(3), 95-103.
- 장운영(2021). 벨리댄스 공연참여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남춤학회지**, 9(2), 135-155.
- 장예(2024). **중장년층을 위한 즉흥무용 움직임 소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전보미(2026). **프리시니어의 은퇴준비를 위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 디자인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동근, 원유병, 김은경(2011). 생활무용을 수강하는 중년여성들의 자기결정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4), 369-384.
- 조은지, 문영(2016). 중년의 무용활동 참여동기와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Arts Communication21의 “춤너머 춤마렐라”, “빙빙 돌자 춤으로 동네 한 바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74(4), 153-166.
- 최수빈(2025). 중년여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 현황 분석. **무용과 이론**, 10, 103-124.
- 최정은(2025). 중년여성의 현대무용 참여가 창의적 표현력과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과학회지**, 14(8), 373-385.
- 한정섭, 김민하(2020). 생애전환기 신중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5(5), 173-193.
- Koch, S., Kunz, T., Lykou, S., & Cruz, R.(2014). Effects of dance movement therapy and dance on health-related psychological outcomes : A meta-analysis. **The Arts in Psychotherapy**, 41(1), 46-64.
- Neugarten, B. L.(1982). Age or Need? **National Forum**, 62(4).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 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199&pMenuCD=0417000000&pType=02, 2026. 05. 26>.
- 통계청(2025).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60700&bid=11895&act=view&list_no=442561, 2026. 05. 26>.
- 통계청(2025). “2025 고령자 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_no=438832&mid=a10301010000, 2026. 05. 26>.

논문투고일 2026. 05. 14.

심사일 2026. 05. 17.

심사완료일 2026. 06. 15.

Research Trends in Dance Participation among Middle-aged Adults in Response to Life Cycle Changes

– Exploring the Expansion of the Pre-Senior Discourse –

Kim, So Yeon* · Shon, Jae Hyun**

Doctoral Candidate, Dongguk University*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in dance participation among middle-aged adults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discourse on pre-seniors within the context of life cycle change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45 studi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between 2010 and March 2026. The stud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period, participants, methodologies, and research topics. The findings showed that research increased after 2015, focusing mainly on women and broadly defined middle-aged groups. In addition, research trends expanded from quantitative approaches toward qualitative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more differentiated research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participation patterns of pre-seniors.

Keywords: The middle aged(중·장년층), Dance(무용), Arts and culture(문화예술), Pre-Senior(프리티니어), Research trend(연구동향)